

♡1 이성이 아닌 감정

미국의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1963~)는 여태까지 서양철학이 “‘합리주의자의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정보처리를 하는 인지과정은 감정과 함께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기억이나 추론이든 감정과 독립되어서 이뤄진 적이 있는가? 감정이 생기면 인지가 처리된다. 따라서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첫 단계가 방금 일어난 일이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여부로 그 일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또래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이익을 능숙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갖가지 정신 기제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명수이고 발각될 염려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게 된다.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더 애쓰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겐 집단을 중시하는 본성도 있다. “우리는 이기적인 영장류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보다 크고 고결한 무엇의 일부가 되려는 열망도 갖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90퍼센트가 침팬지와 같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별과 같다.” 우리 안엔 ‘군집 단추’가 있어서 그것이 켜지기만 하면 개인을 넘어서 집단을 이루길 원하고 전체를 중시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클럽이나 종교 집회에 가면 자신이 사라지면서 더 큰 존재 속으로 녹아드는 기분이 드는 이유다. 혈연이 아닌 타인과 협력하면서 질서를 세우는 데 필요했기에 비합리적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돈과 시간을 소모하더라도 더 높은 가치에 대한 맹목의 믿음이 있는 조직만이 오래 유지된다. 종교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2 코끼리와 기수

조너선 하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코끼리와 기수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화된 체계인 코끼리와 의식하는 체계인 기수로 분열되어 있다. 코끼리는 남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는 본능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이룬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강박적일 정도로 염려한다. 물론 이런 염려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한다.” 기수는 코끼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의 부분으로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진리를 찾으려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변호사다.

사실 기수가 시종들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능력(우리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곱씹어 따져볼 수 있다)은, 코끼리가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또 기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첨단 기술까지 섭렵할 줄 아는데, 이 능력은 코끼리가 자신의 목표에는 한발 다가가고 재앙은 슬쩍 비키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기수는 코끼리의 대변인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이때 기수가 코끼리의 본심을 반드시 다 알 필요는 없다. 코끼리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든 기수는 그것을 사후 조작하듯 설명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코끼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그 정당화의 근거를 잘 마련한다. 인간이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서로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한 때부터, 코끼리의 입장에서는 24시간 내내 일하는 이 홍보 회사를 등에 태우고 다닐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기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를 매우 잘하는데 “자기 잘못을 너무도 잘 덮어 가리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잘못이 없다고 믿는다.” 기수는 코끼리의 성향을 정당화하는 데 도사다. 코끼리는 이미 특정한 도덕을 신봉하도록 배선되어 있어서 사회문제를 들으면 특정한 지향을 표출하게 된다. 인간은 이성적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적 직관주의자”인 것이다. (성조기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을 편들기 위해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낸 구성물일 때가 많다.” 따라서 도덕이나 정치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 감정만 상하기 일쑤다. 서로의 코끼리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를 이기는 데 열중하면서 전투태세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상대 입장에선 억지나 오류로 보인다. 나의 화려한 언변에 같은 편은 열광하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과 혈압만 커진다.

도덕이나 정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정말로 누구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다면, 나 자신의 눈으로는 물론 그 사람의 눈으로도 사물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깊이 있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 반응으로 어쨌든 나 자신의 마음이 열리는 걸 느낄 것이다. 공감이야말로 서로가 바르다는 확신을 녹이는 해독제이다.

우리엔 ‘확증편향’이 강해 자신과 다른 도덕과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일은 힘들다.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수집하는 확증편향은 우리 마음의 특성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진 이성적 추론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우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조너선 하이트는 제안한다.

코끼리는 좀처럼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 모습에 따지고 들면 즉각 나의 코끼리는 그에게 등돌려버리고 기수는 반박할 근거를 찾는다. 그런데 존경할 만한 코끼리를 만나 교감하면 변하게 된다. 친절함 코끼리의 기수가 제시하는 논거에도 쉽게 마음을 열고 감복하게 된다. 코끼리와 기수라는 비유로서 설명한 인간의 마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인간의 마음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기수(통제된 인지 과정)가 코끼리(자동적 인지 과정)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기수는 코끼리의 시중을 들어주도록 진화했다.
- 기수가 코끼리를 시중드는 모습은 사람들을 도덕적 당혹감에 빠뜨렸을 때 목격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은 강하게 직감하고, 그 느낌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후 정당화의 근거를 만들어낸다. 설령 하인(추론 능력)이 아무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도 주인(직관)은 자신이 내린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델은 흠의 모델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좀 더 사회성을 붙여넣은 형태이다. 사람들은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평생 모질게 애쓰는데, 도덕적 추론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이다. 내가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다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사람들이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 따라서 도덕이나 정치 문제와 관련해 누구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코끼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자신의 직관에 어긋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다. 내 논거나 결론에 어디 미심쩍은 부분이 없나 이유를 찾아내면서 말이다. 그리고 거의 백이면 백 그 노력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3 도덕의 다섯 가지 요소들

우리의 ‘바른 마음’은 ‘도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도덕이 사람마다 사회마다 조금 다르다. 조너선 하이트는 도덕들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적응 도전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면서 도덕의 다섯 가지의 공통 기반들을 추려낸다.

- 배려/피해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은, 무력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였다.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필요의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또 이 기반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잔혹함을 경멸하는 경향을 보이고, 나아가 고통 받는 이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을 갖는다.

- 공정성/부정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은, 협동으로 보상을 얻되 착취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였다.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누가 협동과 호혜적 이타주의에 훌륭한(혹은 나쁜) 파트너다 싶으면 그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우리가 사기꾼이나 부정행위자와 관계를 끊거나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이 기반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성 기반에 수정을 가해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기반이 호혜적 이타주의 심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이 험담과 징계가 가능한 도덕공동체를 만들어내고부터는 공정성 기반이 짙어진 의무가 훨씬 많아졌다. 사람들 대부분은 심층적인 직관 차원에서 인과법칙을 중시한다. 사기꾼은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아가는 시민은 응분의 보상을 받기를 사람들은 대체로 기대한다.

- 충성심/배신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은, 연합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였다.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누가 훌륭한 팀플레이어인지에(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와 보상을 주고 싶어 하고, 반대로 나 혹은 우리 집단을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위해, 추방, 심지어 살인으로 응징하고 싶어 한다.

- 권위/전복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은, 사회적 위계 서열 내에서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여 모종의 이득을 거두어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였다.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서열이나 지위의 표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며, 타인이 자신의 주어진 지위에 맞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도(혹은 그렇지 않은지도) 민감하게 살핀다.

- 고귀함/추함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은, 애초에는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였으나, 병원체와 기생충이 득실대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더 광범한 도전 과제 역시 후일 이 기반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귀함/추함 기반에는 행동 면역 체계도 포함되는바,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상징적 사물과 위협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사람들은 집단을 하나로 뭉쳐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비합리적일 정도로 엄청난 가치(긍정적인 가치는 물론 부정적인 가치도)를 쏟아붓는데,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반 때문이다.

조너선 하이트는 다섯 가지 도덕성 기반에다 최근에 자유/압제를 추가한다.

도덕성 기반에 우리는 자유/압제를 추가했다. 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배의 표시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분을 느낀다. 불한당과 독재자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 같이 뭉쳐야 한다는 욕구도 여기에서부터 생겨난다. 이 기반을 잘 알면 자유주의자와 일부 보수주의자가 왜 “나를 짓밟지 마라” 식의 반정부 감정을 가지는지는 물론, 좌파의 평등주의와 반권위주의도 이해할 수 있다.

♡4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차이

성향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뇌를 가졌기 때문이다. “모종의 유전자 조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뇌는 신기함, 다양성 등에는 특별한 만족을 느끼고, 그와 동시에 위협의 신호에는 덜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보수는 비판한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협동하고 번영하려면 외부의 틀 혹은 제약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보수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위와 질서를 무지하게 신봉하는 이유다. 그래도 보수는 도덕적 자본은 잘 지킨다.

도덕적 자본이란 어떤 공동체가 가진 가치, 미덕, 규범, 관습, 정체성, 제도, 첨단 기술, 그리고 이와 맞물린 진화한 심리 기제의 정도를 말한다. 이들은 도덕적 체계로서 함께 작용하여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며, 나아가 협동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한다.

세상의 변화를 꾀할 때 도덕적 자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진보는 이점을 간과한다. 진보파들의 개혁은 자주 역효과를 내는데, “진보주의는 확실히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며,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쌓인 도덕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도덕을 내세우기보다는 도덕적 자본을 헤아려야 한다. 인생에 정답이 하나라고 믿으며 세상의 도덕도 여럿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독선을 부리게 된다. 충성심/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의 기반들은 진보주의자들의 도덕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도덕에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데도 보수주의자들마냥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다. 저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도덕 매트릭스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지만, 그것은 다른 매트릭스가 가진 논리(심지어 다른 매트릭스의 존재까지도)를 못 보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수든 진보든, 맹목이 되지 않는 훈련이 요구된다.

도덕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편을 갈라 싸우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편이 나뉘면 우리는 매 싸움에 이 세상의 운명이라도 걸린 듯이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운다. 도덕이 우리를 눈멀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각 편에는 저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이야기 중에는 뭔가 귀담아들을 것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를 헤아리는 능력도 있다. “이는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관문으로, 그곳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제일 소중한게 간직될 그 슬한 경험을 만날 수 있다.”